

## 발도르프 학교의 12년, 발도르프 교육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2024년 1월 15일 7:00-9:00

강사 Antje Beck

통역 오윤선

서기 이예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서 체육 교사로서 재직하였습니다. 두 번의 8년 과정을 마무리했고 입양된 아이들을 위한 오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했습니다. 7년 동안 사범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5년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입니다. 3명의 아이가 있고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3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들 모두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를 부모, 교사로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발도르프 학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적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발도르프 학교로 오려고 했을까? 라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떠올리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질문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었다가 해주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봅시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었던 것, 들었던 것을 반대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내 아이를 보고 공교육 학교에 가서 힘들 것 같애’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누구나 다른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한국도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 교사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일 때 아이들과 만나며 체육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그중에 한 그룹은 5-8살 아이들 그룹이었고 그때는 인지가 무엇인지 발도르프 교육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경험을 보니 학교에 가기 전에 놀이하는 것을 좋아했고 무조건 따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운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상한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을 즐겁게 좋아했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배우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아이들은 학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압박은 시험성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어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미래에 위험이 다가올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운동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대학을 가도 외부의 압력으로 배워야 한다면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직업 세계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 수 없어’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인간의 상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당연히 발도르프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상 또한 찾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라는 전제로 발도르프 교육은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람은 배우는 것을 원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한 어떤 것을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우고자 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전체를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이런 생각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이 땅에 무언가를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배우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아이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아이들은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갖고 있고 성인이 되어서 생애의 경험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 과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확한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말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조건은 바로 엄마, 아빠, 선조로부터 받게 되는 조건입니다. 바로 유전입니다. 인간의 발달을 위해서 작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하나는 환경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 작은 환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엄마-아빠- 조부모, 친지-유치원-학교-그리고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나라의 특성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주변 환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은 아이를 함께 교육하는 존재로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같은 유전의 흐름을 타더라도 부모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부모와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개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가진 과제를 살펴보면 두 개의 과제가 있는데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과제는 개별성의 흐름과 유전의 흐름을 함께 조화시켜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무언가를 개별성과 조화를 시키고 합일화 시켜야 하는데 딱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두 흐

름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수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21세까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특별한 영향을 주는데요 즉, 이러한 아이들에게 두 가지가 조화롭게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에게 뭔가가 어려움이, 과제가 있을거야’라고 알아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두 개의 과업의 어려움을 보인다면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고 그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0-21세까지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돕습니다. 건강하게 발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유전으로 받은 뭔가가 내적으로 작업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발달과정은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볼 수 있고, 다 키우셨다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를 생각해봅시다. 유치는 작고 모양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로 첫 번째 영구치를 보게 되는 것은 앞니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영구치를 (앞니)를 보면 톱니처럼 생겼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앞니의 모양이 톱니 모양입니다. 첫 번째 영구치는 유치보다 큼니다. 어금니를 보면 어금니도 유치와는 다른 모양으로 복잡하고 큼니다. 즉 이 아이들의 각자 복잡한 모양 안으로는 각자 가진 개별성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모든 아이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가진 아이에게 치아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구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아의 물린 모양을 보고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아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한 사람의 치아 자국을 갖고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갈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가진 개별성이 유전의 힘을 통해서 다시 개별화되어 드러나고 있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년 반 동안 인간은 신체 속에 깊숙이 들어가 개별성을 드러냈다면 다음 7년 동안은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 개별성을 드러내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즉 7세 이후의 아이인 경우 영혼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통해 자극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로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을 이끄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영혼의 삶으로 동반하면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영혼의 삶-느낌, 감정을 통해 깊이 관계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깨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만 아니라 길을 보여주고, 길을 밝혀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람은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담임 교사를 찾게 되고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면 아이들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

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 기준을 갖고 있나요? 혹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건 너무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은 그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말합니다.

담임 교사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라고 아이들은 자주 담임 교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숙제를 완성해서 가져옵니다. 모두 "내가 한 것 잘했어요?"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보고 듣고자 합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즉흥적으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상급이 되어서 이런 종류의 많은 질문을 하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과는 다르게 상급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분법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은 선하다'라는 바탕을 어른들로부터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과정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아이들을 키워 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개별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아동의 발달과정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그 사람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가족을 따라가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 동안 아이들은 사랑을 통해서, 교사의 사랑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창 시절 동안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한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특정 학과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즉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것을 배워간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으로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간을 담임 교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특별하게 느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질문과 동반돼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특별한 질문이 녹아져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까? 당신이 작업해야 할 이 땅에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온 과제를 통해 어려움이 있을 텐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아이의 개별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네 안에 있는 것이 뭐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게.'

아이들이 언제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도르프 학교에는 아주 많은 활동 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교사로 처음 근무할 때 전 발도르프 학생으로 경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임 교사로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원하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웁니다. 예를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초임 교사 이전에는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아이들은 노래하는 법, 형태 그리기 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서서 혼자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제가 발도르프 사범대 재직했을 때 그중 한 명은 발도르프 학교 졸업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일반 학교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제를 내줄 때 공교육졸업생은 더 많이 불안하고 민감해하며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학생을 발도르프 학교 졸업생이 가서 위로해주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은 안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안정감 있게 이야기하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또는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배역을 맡아 많은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술 과목을 통해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실용적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유머를 가지면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교수였습니다. “남자는 교수를 할 수 있지만, 단추 구멍을 끼울 수 없는 교수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임을 안다면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아이들을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명 모두 대학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면서도 실용적 생활에서도 능숙했습니다. 정원일, 요리 등 모두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즉 이렇게 ‘나는 삶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라는 느낌은 머릿에서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대학을 갔음에도 ‘대학을 가기 위해 사는 것인가?’ 또는 ‘직업적 커리어를 쌓기위해서 사는 것일까?’ 등등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질문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과제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과연 필요한가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하면서 지하철을 청소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업적 경력을 쌓았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가구를 만들거나, 가게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직업에 맞는 대학을 나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한다면 물건을 팔거나 청소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일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7-14세 제공해야 하는 환경은 아이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상급으로 초점을 맞춰봅시다. 왜 발도르프 학교에서 상급 과정이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은 만14-15세 사춘기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와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이 시기 학생들은 예전에 관계 맺던 사람들과는 꺼려지는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새롭게 관계 맺고자 합니다. 이들에겐 세상의 많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춘기 시기에 신체적으로 성 성숙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학생들이 신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교사는 스스로 세상에 대해 많이 감동하고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커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때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지 외부의 압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상급 학년 동안 세상을 경험하는 기본적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상급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만나고 실습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상과 관계하기도 합니다. 농업실습, 사회실습 등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태실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급 아이들은 각각의 세상에 들어가 작동되고 있는 작업의 일을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실습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태도를 실질적으로 배웁니다.

제가 교사로 재직했을 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은 절대 아비투어(수능시험 준비)를 할 수 없을 거야’ 였습니다. 그 학생의 8학년 공책은 심각했습니다. 에포크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11학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키워내기 위해 엄청난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공부하고 싶어요, 아비투어를 보고 싶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후 이 학생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일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학년까지 과정 9,10학년까지 공부하라는 압박을 주는 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몸을 만드는 과업을 잘 만드는 데 힘을 쓰고 학교만으로도 지칩니다. 독일에서는 아비투어를 위해서 머릿속에 많은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은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부모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아이야, 너는 너의 길을 찾게 될 거야’ 이어야 합니다.

### < 질문 모으기 >

1.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 학부모의 행사, 수업에 손길이 가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다. 이것의 적정선이 어디일지? 학부모 간의 거리도 가깝고 다른 아이들과도 가깝다. 한없이 가까워져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로서 학교 활동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아이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2. 상급 아이들에게 ‘세상이 선하다’를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사회문제에 대해서 듣고 전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어디까지 답해주어야 하고 어디까

지 허용해주어야 할까요?

4. '세상이 선하다'에 대해 '사람은 착하다'를 믿지만,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게 된다. '세상이 선하다'라는 것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 부모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5.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발도르프 학교를 설명하면 '그 학교는 느린 학교구나 답답하게 돌아가네'를 듣는다. 시대적 흐름이 빠르는데 우리 아이들만 느리게 가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바뀌는 속도와 너무 다른데 세상 속도와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까?

## < 답 변 >

세상과 발도르프 학교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세상과 발도르프 학교와는 다릅니다.

조금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근본적인 교육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0~7세부터는 '세상이 선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7-14세까지는 발달을 위한 교육적 원칙은 '세상은 아름답다'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시기는 세상에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다.'를 배워야 합니다. 14~21세 청소년 단계는 '세상은 진실하다'라는 교육의 원칙을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의 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 합니다.

7-14세까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세상은 아름답다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환경문제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하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움, 별들이 반짝이고 동물들이 활동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자연과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만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만한 곳이구나'라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급으로 가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먼저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아이들은 상급에서 이상적인 어떤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자란 아이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뭔가를 해볼 거야, 내 행위로 선하게 바뀌 볼 거야.'라는 이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건강한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미, 세상에 대해서 진실로 사랑하고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상급이 되어서 진실된 이상을 스스로 꿈꿀 수 있습니다. 상급 시기에는 '세상은 진실되다.'를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됨'은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 학생들은 행위를 하고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들을 어른으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 학생들은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경험으로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5학년 시기의 아이라면 세상의 나쁜 소식을 가능한 듣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없고 거품으로 두려움이 아이들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린 시기 아이들에게는 이런 나쁜 소식을 덜 접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말은 "세상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다행히 전쟁이 없구나. 사람은 다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기도 해." 이런 엄마와 큰 아이와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동생이 다 듣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격앙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를 작은 아이가 다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작은 아이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불안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깊이 관계를 가져야 할까?

사실 여기는 일반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교사와 부모가 학교 오기 전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면, 혹은 학교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참석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있다면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학급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면 다른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말을 놓을까 말까 하는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히 8학년, 9학년 아이들은 학급여행 부모님이 같이 가는 것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부모, 부모-부모 간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밀접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아이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교사-부모가 밀접하고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교사-부모, 부모-부모가 밀접하고 좋은 관계면 어릴수록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에 대해 부모가 불신을 갖는다면 아이는 바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신뢰가 없는 부모가 학급에 여러 명이면 교사가 학급 안에서 설 수 없게 됩니다. 담임 교사는 부모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실에 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교사가 수업을 한다면, 교실 뒤편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8학년이 되면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8학년이 되면 부모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담임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것은 학부모의 날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자리에 오셔서 소통하셔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 사이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제가 교사로 처음 재직했을 때 담임으로서 부모와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교사들 리스트를 봤습니다. 38명의 아이들 중에 8명이 교사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저

에게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동료와의 관계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이후에는 개별적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질문에는 규정되어있는 대답은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교실에서 매일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보게 될 것이고 교사들은 동료들을 매일 보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opyright 2024. Seoul free Waldorf school. all rights reserved.